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소식

ALA 2005 총회에서 2006 대회 홍보 전개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지난 6월 말 미국 도서 관 협 회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5년도 연차총회(Annual Conference) 전시회에 조직위 부스를 개설하고 서울대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어 약 2만 5천여명의 도서관인들이 관람하였으며, 우리 조직위 부스에는 3~4천명의 도서관인들이 방문하여 서울대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부스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에서는 한상완 집행위원장, 김도미 사무처 사업팀장, 조명준 사업팀원 등 3명을 파견하였으며, 부스 운영 이외에 김도미 팀장은 ALA 총회 프로그램 중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update 세션에서 서울대회를 소개하였는데, 동 세션에는 IFLA 본부 신임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ALA 내 IFLA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출장 관련 상세 내용은 본지 12-13쪽 참조)

신성고등학교도서관, "Library Visits" 참여 도서관으로 추가 선정

조직위는 2006 서울WLIC 프로그램의 하나인 "Library Visits"에 참여할 도서관에 신성고등학교도서관(경기도 안양시 소재)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직위는 신성고등학교도서관이 6만 5천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 전용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사서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시설 및 운영 면에서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소개하기에 손색없는 학교도서관 중 하나라는 학교도서관 계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들여, 지난 5월 2일 발표한 36개 방문도서관에 신성고등학교도서관을 추가하여 최종 37개 도서관으로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

2005 오슬로 대회에서의 홍보준비에 박차



조직위는 WLIC 대회 차기 개최국으로서 이번 2005 오슬로 대회에서는 막바지 대회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기남 위원장을 대표로 한 15여명의 조직위원들은 8월 14일(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대회 관계자 준비회의 참가를 비롯하여 서울대회 전시 부스 운영, Final Announcement 책자배포, 폐회식에서 신기남 위원장의 서울대회 환영사와 한국과 서울, 국내 도서관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 및 서울예술단의 축하 공연 등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협회소식 *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한상완(韓相完, 64) 교수가 7월 1일자로 2년 임기의 우리 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년간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 회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직기념패 전달 후 전임 신기남 회장(사진 좌)과 신임 한상완 회장(사진 우)〉

7월 15일(금) 오후 5시 30분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20여명의 신·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었으며, 한상완 신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올해 회장으로 취임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선배 도서관인들과 전임 회장님의 노고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비롯하여 도서관 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안에 모든 우리 도서관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칠 시다.” 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피력했다.(취임사 전문은 본지 2-3쪽 참조)

한편,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20대, 제21대 회

장을 맡아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기남 전임 회장은 “지난 4년 간 비전문인 협회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도서관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보여준 도서관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충실히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을 회고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제2기 이야기(스토리텔링) 전문교육과정 수료식 가져



▲ 수료식 후 기념 단체사진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7일(목)부터 6월 23일(목)까지 14주간 제2기 이야기(스토리텔링) 전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지난 6월 23일(목)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총 31명의 수강자 중 29명이 수료하는 등 수강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수료자에게는 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었으며,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문의 : 사무국 강원영 ☎ 02-535-4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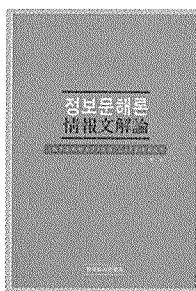
■ 수료자 명단

강혜경 마포평생학습관

고광미 서울일본인학교

고미영 안산화랑초등학교 도서실
 고은아 서울시립용산도서관
 권영미 서울고척도서관
 김강선 의정부청룡초등학교도서관
 김연옥 인천주안도서관
 김주아 성북정보도서관
 박순애 강서도서관
 박정미 강북삼성병원 의학정보실
 배미숙 마포평생학습관
 안경애 신용보증기금 도서실
 오수정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유수희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실
 유영숙 오포초등학교 도서실
 원미정 인천북구도서관
 이경남 하원초등학교 도서실
 이미영 성북정보도서관
 이선영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임완정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장석례 한양대학교 도서관
 장혜신 지구촌교회 도서실
 정혜경 남산도서관
 허영선 한양대학교 도서관
 황은영 연성초등학교 도서실
 현인옥 청담2동 도서관
 심재숙 동작도서관
 이서원 인천주안도서관
 최인경 한국도서관협회

『정보문해론』 발간



협회 신간 『정보문해론』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현정보학
 과 교수 저)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최근 새로운 정보기술이 지식의 소통에 있
 어서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
 면서 학생들의 조사 능력을

확대시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
 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
 하여 '정보문해' (情報文解, Information Literacy)의
 각 종 이론과 모형을 분석하고 실무에서의 발전
 역사와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가는 10,000원(회원보급가 8,000원).

2005년도 상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우리 협회가 2002년
 9월부터 시작한 가정독
 서운동 캠페인(후원 : 문
 화관광부,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관련하여
 2005년도 상반기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하였다. 올해부터는 협회 단
 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에는 총 182개 공공도서관에서 총 274가족이
 추천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당 도서관장 앞으로 “책
 읽는 가족” 인증서 및 현판을 송부하였으며,
 2005년도 하반기 선정은 12월경에 추진될 예
 정이다. [문의 : 강원영 ☎ 02-535-4868]

2005 청소년 책읽기 사업 추진 계획 확정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청소년위원회가 후원
 하는 ‘2005 청소년 책읽기 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사명은 「친구들아, 함께 책 읽자!—공공도서
 관 청소년 독서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월부
 터 11월까지 5개월 간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
 으로 추진된다.

우리 협회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독서회’ 가
 청소년들의 독서습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생각되어 2005년 청소
 년 책읽기 사업을 통해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에

서 청소년독서회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청소년 독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으로 사업은 크게 '공공도서관 청소년독서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공공도서관 청소년독서회 토론프로그램 지원' 두개의 행사이며, 세미나 개최와 토론플랫폼 시상 및 전시는 제43회 전국도서관 대회 기간(10월 19~21일, KINTEX) 중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문의 : 이용훈 기획부장, ☎ 02-535-4868]

■ 세부 추진일정

- 7월~8월 : 독서토론회 참가도서(1종) 지원
: 청소년 독서회 실태 조사
- 8월~9월 : 우수 운영사례 및 토론플랫폼 공모
※ 9월 중 결과 발표 (각 부문별 10개 도서관/독서회 선정 예정)
- 10월 19일 : 공모전 우수도서관/독서회 시상
(제43회 전국도서관 대회장)
※ 대회 기간 중 우수결과물 전시도 병행(예정)
: 세미나 개최

* 전문위원회 *

2005년도 제3차 기획위원회

- 일시 : 2005년 6월 28일(화) 11:00~12:3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안건 :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에 관한 문제
2) 기타 도서관계 현안
- 참석자 : 이은철(위원장), 윤희윤, 이숙현, 황남구(위임)(이상 위원), 이경구 사무총장, 이용훈 기획부장, 이현주 총무부장(이상 사무국), 여우숙 사무관(문화관광부)

· 회의 내용 :

-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진행 경과 설명
- 2) 현재 국회도서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3) 기획위원회에서는 현 법안에 관한 쟁점에 대해 협회의 입장 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은철 기획위원장과 윤희윤 위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서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확정한 후, 향후 상황에 대응하기로 함.
- 4)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협회가 참여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

* 협의회 소식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장에 장공자 충북대 도서관장 피선

장공자 충북대학교 도서관장이 제14대 전국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장 회장은 지난 6월 17~18일 목포대에서 열린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 국내 소식 *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태근)은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적극 수용하여 내부검토

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이에 따른 지침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동 지침내용에 따르면, 도서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6개월 ~3년의 기간 내에서 회원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도록 하였고, 그 기간 이전이라도 회원이 탈퇴를 하면 지워지도록 하였다.

또, 회원 개인별 도서대출기록 서비스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회원의 도서대출기록이 개인의 사상, 취향, 가치관을 알리는 중요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카드형태의 회원증 표면상에는 이름, 사진, 회원번호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회원증 분실시 개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회원등록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CCTV설치와 관련하여, 열람실 내는 회전 및 줌방식의 고성능 기기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링 기능 설정을 없애도록 하였다.

모니터링은 이용자의 접속사이트를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서관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연수 교육시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침해에 관한 과목을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토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등 여타 문화단체에서도 도서관과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유·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치는 최근 일고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선도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권고결정은 수도권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출입구에 무인 좌석발급기를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입관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담당 김준 ☎ 02-590-0541]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자료 발표

– 2004년 말 487개관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국 487개 공공도서관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공공도서관통계(2004. 12. 현재)”를 발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487개관으로 전년도 471개관에 비해 16개관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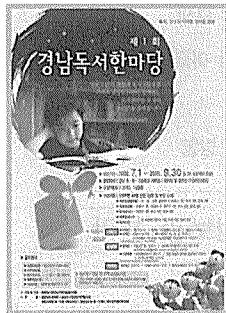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구 달서구 어린이도서관 착공

대구 달서구는 달서 어린이도서관을 상인동 80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대구은행과 협력, 건립키로 하고 6월 28일 공사에 착공했다.

달서 어린이도서관은 달서구와 대구은행이 협력하여 건립하는 방식으로 달서구청에서는 도서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대구은행측은 건물 신축 후 달서구에 기부하고 도서관 1층은 관련 법령에 의거 최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경북일보 인용]

경남창원도서관, 제1회 경남독서한마당 개최



경남창원도서관은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도민전체의 화합과 바르고 풍요로운 독서생활화를 위해 창원도서관(경남지역 대표도서관) 주최, 경상남도교육청·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의회·창원교육청 외 19개 지역 교육청·경상남도 및 10개 시, 10개 군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제1회 경남독서한마당을 개최한다.

참여대상은 경남도민으로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응모 부분은 독후감상문, 독후감상화, 독후일러스트, 독서포스터, 독서사진으로 7월 1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경남소재 공공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 26억2천만원 들여 57개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하기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올 한해 26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7개 학교의 도서관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총 162억5천6백만 원을 지원해 전체 학교의 93%가 도서관을 확보하고 그중 52%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을 현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1회 직지상 9월 2일 청주서 시상식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약칭 직지)을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1회 직지상 시상식이 오는

9월 2일 청주에서 열린다.

7월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UNESCO) 관계자와 주한 외교사절, 인쇄·출판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국립도서관에 '제 1회 유네스코 직지 기록 유산상(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과 함께 상금 3만달러를 수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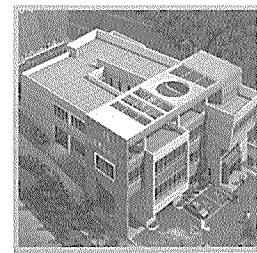
체코 국립도서관은 세계 기록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6월 16일 중국 원난(云南)성 리장(麗江)에서 열린 '제7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에서 첫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는 시상식을 전후한 9월 1~4일에 다양한 학술·문화행사를 펼치기로 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 세계 기록유산국 교류세미나, 금속활자 주조 세미나, 직지문화산업 특구 조성계획 세미나, 흥덕사지 발굴 20주년 기념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세계기록 유산 특별기획전, 직지 전국사진공모전, 금속활자 주조체험, 세계민속공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청주시는 유네스코와 함께 직지상을 제정, 격년제로 시상한다. [연합뉴스 인용]

진건 공공도서관 및 계룡도서관, 올해 연말 개관 예정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계룡시는 올해 12월 각각 공공도서관을 개관한다.

57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건립될 진건공공도서관(좌측 조감도)은 부지면적 1,322m²(400평), 연면적 2,846m²(860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에 건립될 계룡도서관(우측 조감도)은 부지 855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오는 11월 제8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http://www.dpc.or.kr>)는 제8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및 전시회(DLC)를 11월 22일(화)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동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원고와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를 공모하고 있다.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미국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 워크숍 개최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는 7월 20일(수) 10시 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미국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1세기를 맞아 새로이 변모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서의 역할과 미래에 초점을 맞춰, 발표 및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문의 : ☎ 02-397-4647, 4713, 4789, 팩스 02-795-3606]

■ 일정

- 개 막 : 김수남 박사(자료정보센터 관장)
- 환영인사 : 단 큐 워싱턴 박사(미국대사관 공보 참사관)
- 발 표 :
-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 보유 자료 및 서비스(김수남

자료정보센터 관장)

- 미국 도서관의 서비스 : 우수 사례 소개(임태숙 관장, Linn, Missouri State Technical College)
- 21세기 사서들의 변화되는 역할 모색 (Elizabeth Leonard, 동아시아 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 담당관)
- 토 론 : 미래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 개관

농촌진흥청은 지식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농업과학도서관과 경영정보센터 기능을 갖춘 첨단 농업경영정보관 개관식을 7월 15일(금) 개최하였다.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Library Visits” 프로그램 대상 도서관의 하나이기도 한 농업경영정보관은 지난 2003년 7월에 착공,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7,518m²(약 2,274 평) 규모로 총 98억84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은 농업경영정보관 개관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농업경영정보관 로비에서 농촌진흥청 발간 우수저서 및 교보문고 등 5개 대형서점의 국내외 농업관련 우수도서 5천 여권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청주 기적의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청주 기적의도서관(관장 서일민)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7월 15일(금) 청주 기적의도서관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잔치는 오후 2시 30분 1주년 개관 기념식을 시작으로 원화전과 동화표지전 등을 선보이는 책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졌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도서관 야외 잔디밭에서 다도를 배우는 ‘지혜의 옹달샘 마시기’를 비롯해, ‘떡먹기 책먹기’, ‘내가 만드는 손수건 그

림책', '흙파리 만들기 체험', '10년 후의 나에게 편지 보내기' 등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산시 '좋은 책 보내기 운동'
성금 모금 현황**

(2005. 7. 17.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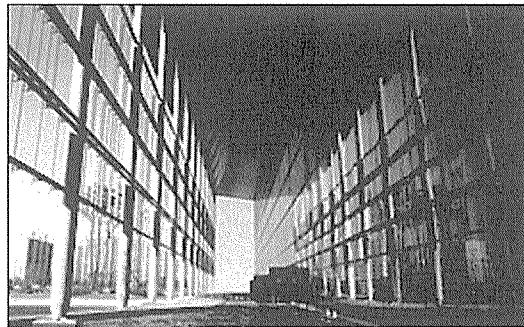
1,845,133원

<관계기사 본지 5월호 9쪽 참조>

 **마로김습니다.**

2005년도 6월호 5쪽

- 제22대 임원 명단에 '이은철(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사의 명단이 누락되었습니다.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10월 19일(수) ~ 21일(금)

 한국국제전시장 (KINTEX)